하나님 IQ로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

(사무엘하 2:1~7)

1.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2.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IQ로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IQ로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
1935년 10월 30일에 미육군항공대에서 차세대 폭격기를 선택하기 위한 비행시합이 열렸습니다. 가장 주목 받았던 폭격기는 이전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한 번 주유에 두 배나 멀리 날 수 있는 보잉사에서 만든 모델 299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을 모았던 모델 299기는 땅에서 이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복잡한 장치로 인해 제어장치를 해제시키는 한 단계를 잊어버림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델 299기는 '한 사람이 조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비행기'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보였고 이로 인해서 보잉사는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미군이 너무나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조종사들이 실시해야 할 핵심사항을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조종사의 기억을 따라 비행기의 계기판을 보며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에 적힌 대로 조작의 과정을 밟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한 '하늘의 요새'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B-17의 폭격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파브라이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대표인 모니시 파브라이는 "나는 IQ가 300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쓴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체크리스트 한 장만 있으면 나는

IQ 300인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선민에게도 체크리스트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가 결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명론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 결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IQ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이루어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IQ로부터 계획된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도 하나님의 IQ에 미칠 수는 없습니다.
모니시 파브라이 대표가 '나는 IQ가 300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쓴다.'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선민은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IQ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쓴다.'고 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체크리스트가 주목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제로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본 결과 업무효율 뿐만 아니라 일의 성공과 실패, 나아가서는 사람의 생사까지도 좌우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보잉사에서 만든 모델 299기는 그 복잡한 장치를 기억에 의해서 조작하다보니 폭발하고 조종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장의 종이일 뿐인 체크리스트는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을 배제하는 역할로 인간의 기억력과 기호를 배제시킨 것으로, 인간 바깥에 존재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빠짐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큰일을 하는 사람치고 이 체크리스트가 없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선악과나무가 에덴동산에 존재했던 이유도 사실은 체크리스트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체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생각할 능력은 있지만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이고, 나의 IQ를 써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IQ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을 체크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체크하면 됩니다. IQ 200으로 땅에 대해서 신경쓰며 반응하는 것보다 전혀 땅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체크해나가면 하나님의 IQ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의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다윗은 원하든 원치 않던 탄탄한 기반의 왕권을 확립한 아버지가 다윗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권을 든든한 기반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정권장악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권장악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에 올라갈 것에 대해 묻는데, 사울 왕이 죽었으므로 열두 지파의 지경 중에 유다지파의 사람이므로 유다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왕으로 선포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하나님께 '올라갈까요?'라고 묻는데 하나님의 IQ로부터 나온 내 생애의 계획표에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있는지를 체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라가라'는 대답을 듣고서야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성읍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유다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땅의 지형지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왕이 되기 위한 계획의 거점으로 군사전략상 정치역학상 가장 좋은 곳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판단이 비록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판명될지라도 판단은 할 수 있었는데 또 바보처럼 하나님께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라고 묻는데 하나님의 IQ에서 나온 계획표에 어느 성읍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나간 것입니다.
모델 299기의 조종사가 계기판을 보면서 기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조종을 하는 것처럼, 다윗은 땅의 정세를 살피지 않고 현재의 정치국면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다음 부분을 보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힘을 합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가 7년 여간 왕권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윗 또한 왕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정세를 살피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합칠 것은 합치고 떼어내야 할 것은 떼어내고 음모와 모략과 술수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은 천상에 준비된 하나님의 체크리스트만을 체크해 나갑니다.
이 세상 정권 장악의 역사를 봅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경 부근의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군대의 하사가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독일의 가장 작은 정당이었던 독일노동자 정당에 들어가서 1년 만에 나치스정당으로 바꾸고 장악합니다. 봉기를 일으켜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으나 총리가 되어 600만 명의 실업자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여서 독일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 다음에 그 인기를 힘입어 수상 및 총통을 겸하는 독재정권을 수립합니다. 이후에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으나 패배하여 자살로서 끝이 나고 맙니다.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변수의 개입으로 음모와 술수가 필수적이었으나 다윗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마치 마음이 소경이 된 것 같이 행동하고, 하늘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체크리스트의 단계를 하나씩 체크해 나갈 뿐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IQ로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준비된 천상의 체크리스트를 이 땅에서 체크하며 살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게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던 어린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또한 기름부음을 통해 왕이 되었고 이것이 왕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주어지고 10년이 넘도록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고, 이 도망자 생활 동안에 천상의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사람으로만 철저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다윗의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독교의 본질을 깔아뭉개는 해석을 했는데,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다음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행동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다. 이렇듯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어서 10년의 어려운 기간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왕위와 하나님 사이에 다윗이 있게 되었으나, 다윗은 이 10년을 통해서 왕위에서 가장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장 밀착한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 동안의 어려움을 참은 것이 아니라, 왕위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가져야 함을 절대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왕위는 붙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위와는 대척점에 서있는 도망자와 타국의 망명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체질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왕위가 없어도 기쁨과 행복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 사울은 그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10년은 왕위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약속의 내용을 부정하는 시간이었을 뿐 약속을 붙잡고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 전체가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가 될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소하게 보일 것 같은 단계들 마다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고 체크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만을 기다렸다면, 유다로 올라가서 좋아하는 성읍에 자리를 잡고 왕권을 주장하며, 마치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유다 이외의 지파들이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록을 읽어보면(창12~25장)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귀와 마음에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거듭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단지 엘리에셀 종을 후사로 삼겠다고 할 뿐이었고,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고백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사는 동안에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면 이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잘 될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아내나 남편을 만날 것이고, 출세할 것이라'는 약속은 너무나 좋습니다만 이러한 약속의 내용이 나의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에서 가장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에 비로소 약속을 발전시키고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나의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에는 내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IQ에서 만들어진 계획표대로 그 약속의 성취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왕위대신에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계획표가 체크리스트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리스트대로 항목을 따라 역사해 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는 계획표에 있습니다. 그 계획표가 내게 체크리스트가 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IQ에 의해서 나를 위해 준비된 계획표를 체크만 하면서 살아갑니까? 재정적 상황, 가족관계의 상황, 건강의 상황, 자식들의 성적이나 취업을 고려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끌려가려는 모든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가지면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이 땅의 상황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의 IQ에 의해서 이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느냐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면 땅의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체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밀착되면 하나님의 IQ로 만들어진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어떤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밀착함으로써 그것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표가 나의 체크리스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